

함께 함께 가자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
 도시는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빛깔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시민의 이야기가 모여,
 알록달록한 군산을 만듭니다.





2025년 10월호

Contents

04	기 획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
06	군산은 지금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10	군산의 섬(島)	고군산군도, 말도
12	오늘 어디갈까?	알록달록 가을빛에 물드는 군산의 숨은 명소
13	군산의 미(味)	가을을 맛보다, 가을철 식재료: 오징어
14	군산의 사(史)	마한이야기
16	군산의 가(街)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
18	군산의 전통시장	추석맛이 장보기
20	생활정보특독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솟품 등 소개
21	시민리포터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리포터
22	도서관 소식	가을에 떠나는 책 여행
23	보건 소식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4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읍면동 소식
25	문화산책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갈등하는 두 세계
26	의정	의회 주요 소식
28	시정알림	시정소식 및 알림
30	문화공연	문화공연 소개 등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 10. 제342호 발행일 2025.9.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미디어홍보계장 김현정, 주무관 김미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정책을 잇는 다리, 군산의 소통

군산시는 시민과 직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답을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 콘서트, 타운홀 미팅,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사람과 정책을 잇는 다리 역할을 이어가며,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공인 정책콘서트

8월 23일 동우아트홀에서 열린 정책 콘서트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주제 없이 시민들이 종이비행기에 질문을 적어 날리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자리, 주거, 관광 같은 생활 밀착형 질문부터 도시 비전까지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군산경제, 함께 길을 찾다

8월 28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군산 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 금융제도 등 현실적인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시민 제안함 덕분에 현장에서 직접 발언하지 못한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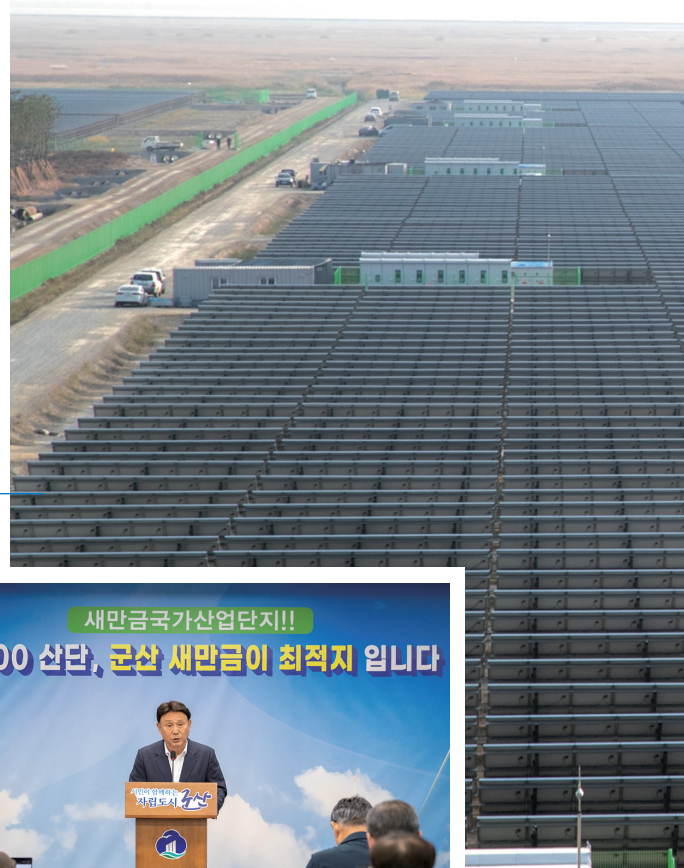
조직 안에서도 공감의 대화

9월 4일과 8일 금강도서관에 열린 노사 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인사제도, 근무 환경, 시정 비전 등 조직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전 설문과 현장 건의가 직접 전달되었고, 시장과 노조위원장이 답변하며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
군산의 소통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군산시, 신재생에너지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지구를 살리는 유쾌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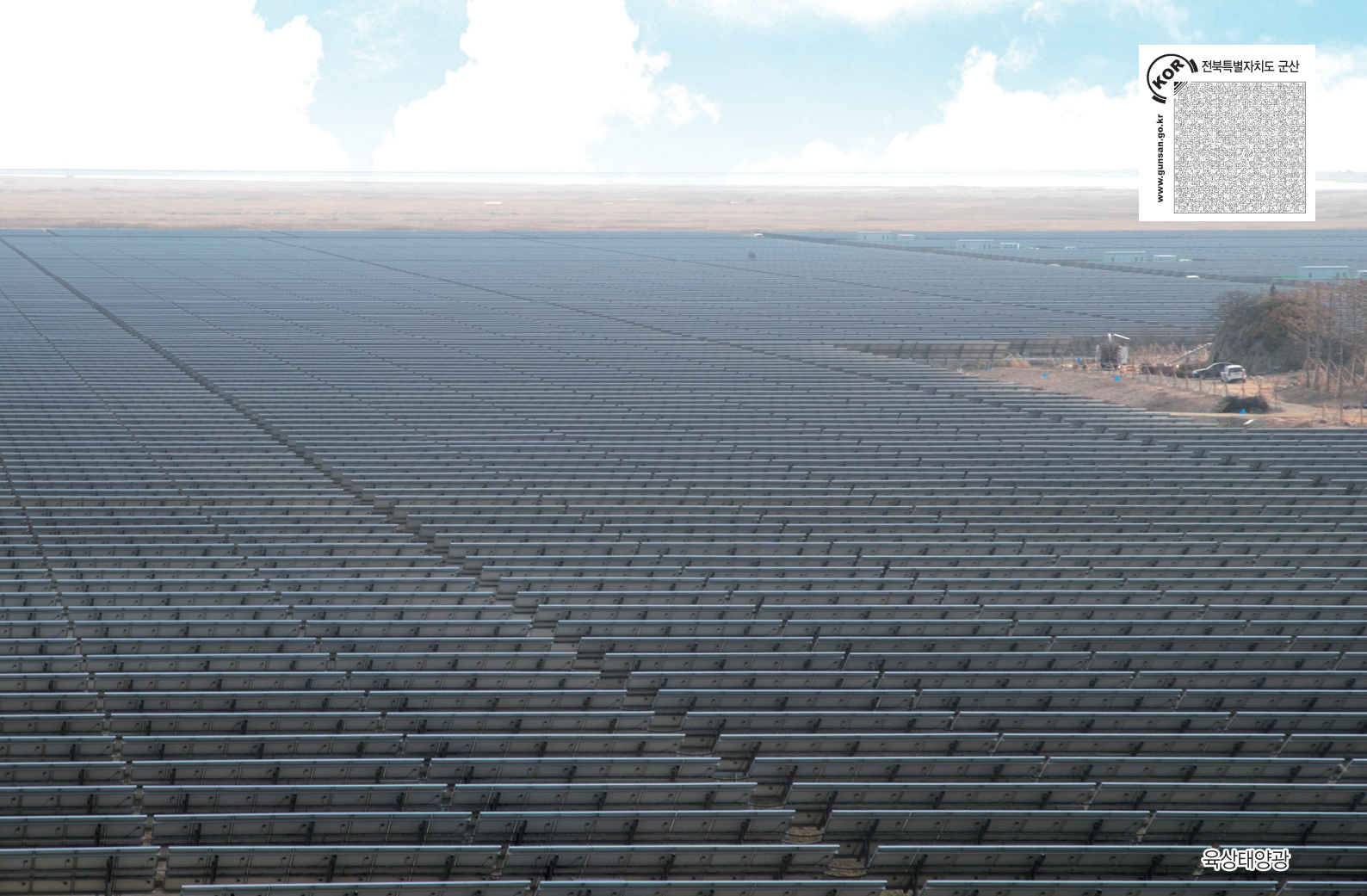


새로운 지평, RE100 에너지 대전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햇빛, 바람, 물, 땅속의 열기, 버려지는 생물까지, 자연이 준 자원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2050년까지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9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깨끗한 공기,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일자리까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사회의 만능 해결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은 RE100, 즉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움직임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흐름 속에서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의 가장 야심 찬 계획은 바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입니다. 2018년 처음 4GW 규모로 출발한 계획은 이제 7GW로 확대되었고, 국내 최대 300MW급 육상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1G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공항·철도를 두루 갖춘 '트라이포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산은 앞으로 세계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육상태양광

성으로 증명하는 군산의 힘

산업을 키우다

군산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주)휴먼컴퍼지트가 군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477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은 군산을 **에너지 산업의 강소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다

군산시는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과 상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약 686세대가 참여했고, 지금까지 총 2,300가구에 180억 원 규모의 설비가 보급되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3kW 기준) 설치 시 연간 50만~6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군산의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돈 버는 에너지, 생활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 함께 만드는 내일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와 주거지에서 최소 1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용지 확보가 어렵고,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권과 송전탑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주민 참여와 신뢰에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은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모델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은 성공 사례입니다. 마을 기금으로 환원된 수익은 경로당 지원, 장학금, 마을 정비에 활용되며 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군산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간다면, 기술과 자원을 넘어 **사람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에너지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군산의 도전

군산은 지금 RE100 산업단지를 발판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기업을 키우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군산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산의 에너지 미래를 이끌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이름 그대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영환 대표를 만나, 군산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 미래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의 길을 들어봤습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전환

“우리 회사가 맡고 있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수상 태양광 발전도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시민들과 나누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최 대표의 설명처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단순한 에너지 기업이 아닙니다.

태양과 바람을 모아 만든 전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지요.

‘민전’에서 ‘G-PPA’까지, 이름에 담긴 의미

군산시민발전주식회라는 다소 긴 이름 탓에 직원들과 시민들은 회사를 ‘민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전력의 ‘한전’과 달리, 전기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영문 약칭은 G-PPA* 인데, 흥미롭게도 이는 전력 공급계약을 뜻하는 PPA와도 겹칩니다. 앞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직접 PPA(전력공급계약) 모델을 도입해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지역 기업과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구상을 보여줍니다. 군산을 ‘RE100 선도 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전략이지요.

*G-PPA : Gunsan People's Power Associ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만들어갑니다.



인근 주민 지원사업

마을기업

유한책임회사
군산주민태양광

마을기업

- 1km내 1년 이상 거주민 5인 이상 참여
- 총 사업비 4%이상 자금 조달

↓ 수익 배분
24만원/명/년

인근지역주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정책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기회

최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도 이에 발맞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헴 공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PPA(전력공급계약)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맞춘 빠른 대응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시민과 함께 즐겁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에서는 자가발전 자전거 체험, OX 퀴즈, 홍보 부스 운영 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서해의 보석 '말도' 꿈과 낭만이 흐르는 끝 섬 여행

고군산군도는 수십 개의 섬이 군락을 이룬 아름다운 섬 여행지입니다.
그중 말도·명도·방축도는 대한민국 대표 '고군산 섬잇길' 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세계인이 찾고 싶은 특별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은 군산 섬의 매력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고군산군도의 끝 섬이자 특별한 이야기를 품은 섬, 말도를 함께 만나볼까요?

📷 말도 이야기

말도는 고군산군도의 맨 끝에 자리한 작은 섬으로, '끝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면적 0.471km², 섬 둘레는 약 3km로 아담하지만, 바다와 구름지가 어우러져 산촌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불리며 주로 해삼·전복을 양식이 활발하고, 광어·도다리·놀래미·우럭·꽃게가 많이 잡혀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서해를 향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가장 크고 오래된 등대가 있어 작은 섬이지만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 말도의 역사와 문화

1872년 만경현 지도에는 "미도리(未島里)"로 기록 되어있으며, 고군산군도의 끝에 있다는 의미에서 "말도(末島)"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중엽으로, 한양에서 귀양 온 심 판서가 정착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심 판서를 추모하고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으나, 현재 그 전통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마음을 사로잡는 명소들

천연기념물 제501호 습곡지형

오랜 지질시대를 거쳐 형성된 말도의 습곡구조는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1호로 지정된 귀중한 지질유산입니다. 거대한 지각 운동으로 인해 지층이 물결처럼 휘어지며 장대한 풍경을 이루었고, 그 모습은 파도에 침식된 말도 남동해안 절벽에서 선명히 관찰됩니다. 커췌이 쌓인 지층 속에는 지구의 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지구의 장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자연 교과서입니다. 수려한 바다와 어우러진 이 지질 경관은 학술 가치뿐만 아니라 시각적 아름다움도 뛰어납니다



말도 습곡구조

천년송

거친 바위틈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라난 신비로운 천년송은 말도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혹독한 바닷바람과 염분을 이겨내며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 소나무는 불굴의 생명력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술품입니다. 특히, 이곳은 바다 갈매기의 서식지로 5월 말이면 수만 마리의 갈매기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어 말도의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말도 천년송

말도 등대

1909년 설치된 말도 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세운 등대로, 현재까지 서해와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불빛은 37km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절벽 위에 우뚝 선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의 '2025 등대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을 통해 보물섬 전망대, 전시·체험 공간, 등대 모험길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말도의 독특한 섬 문화와 등대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도 등대

📷 말도 트레킹

말도에는 6.6km 길이의 해안 데크길을 포함한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약 2시간 30분 동안 천혜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선착장-도끼섬-단도-말도등대-정자-83.8M봉-해변가-전망대-말도 해안절벽-말도 여객선 선착장

📷 말도 가는길

말도는 장자항에서 직선거리 약 9km 떨어져 있으며, 여객선을 이용해 관리도·방축도·명도를 경유하면 약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배편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여객선 안내] 장자도 선착장 ☎063-464-4614(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여객선 예매]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예매 island.theksa.co.kr

“서해 끝자락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
말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알록달록 가을 빛에 물드는 군산의 숨은 명소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빛이 짙어지는 계절,
군산 곳곳은 사진으로 담고 싶은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가족 나들이, 연인과의 산책, 혼자만의 힐링 여행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군산의 가을 명소를 소개합니다.

임피향교

오래된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전통 건축과 어우러집니다. 천천히 걸으며
깊어져 가는 가을의 차분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46



이영춘 가옥

담장을 감싼 담쟁이가 붉게 물들고 고택의
창틀마다 가을빛이 스며듭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풍경이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 군산시 동개정길 7(개정동)



군산구 임피역

임피역은 운행은 멈췄지만, 역사를 담은
간이역, 승강장 옆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날 그 자체로 감성 한 컷을
선물합니다.

📍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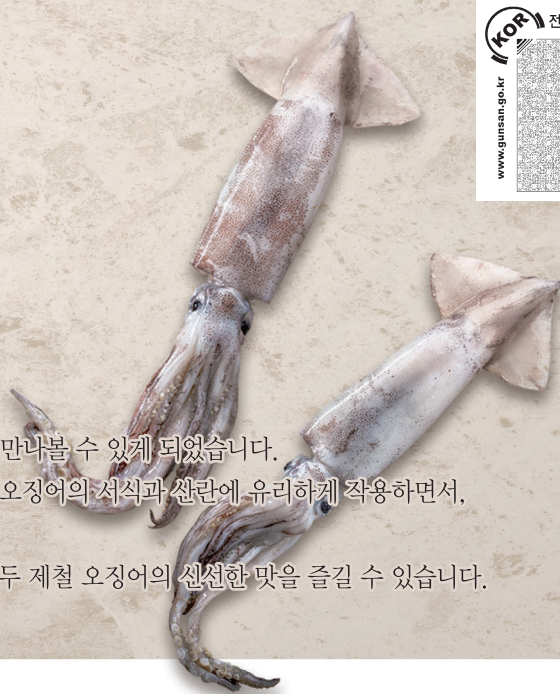


오동통한 군산 오징어, 풍년을 맛보다

한동안 귀해 '금징어'라 불리던 오징어를 이제는 군산 앞바다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과 멸치·새우류 등 먹잇감의 증가가 오징어의 서식과 산란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동해 대신 서해의 군산이 새로운 주요 어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금어기 해제 이후 어획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제철 오징어의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오징어의 매력

여름철 8월에 잡히는 오징어는 작고 살이 부드러워 회나 숙회로 즐기기에 알맞습니다. 9월에서 11월에 잡히는 가을 오징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과 식감이 풍부해집니다. 구이, 볶음,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기에 좋으며, 은은한 단맛과 풍성한 식감은 가을 밥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신선한 오징어 고르는 방법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나 비응항에서 신선한 오징어를 고르려면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생물 오징어는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고, 몸은 투명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몸빛이 흰색으로 탁하게 퍼져있거나 탄력이 없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또한, 눈이 맑고 선명해야 좋은 오징어입니다. 냉동 오징어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해야 합니다. 오징어는 내장이 가장 빨리 상하기 때문에 손질 후 냉동 보관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쫄깃해지는 군산 오징어. 지금 군산에서 바다의 내음과 함께하는 특별한 미식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징어볶음 만드는 방법

기본재료 오징어(중간 사이즈) 2마리, 양파 1/2개, 양배추 3장, 대파 1/2대, 애호박 1/3개, 당근 1/5개,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식용유 약간

양념재료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맛술 1큰술, 간장 1큰술, 굴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물엿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가루 약간, 후춧가루 약간

1. 오징어는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칼집을 넣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2. 볼에 양념장 재료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3. 양파와 양배추는 채를 썰고 당근과 애호박은 먹기 좋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풋고추와 홍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4. 달군 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와 양배추, 당근을 넣어 볶다가 오징어와 애호박, 양념장을 넣은 후 센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5. 오징어가 익으면 마지막에 대파와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은 후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 해주세요.
6. 그릇에 오징어볶음을 담고 통깨를 뿌려 맛있게 즐겨주세요.



저기... 혹시... 그거 아세요?

군산시 학예연구사
나병호



군산, 群山, Gunsan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들으며, 말하는 군산은 자연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도시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군산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구 군산세관’ 등 원도심 일원에 위치한 근대유산과 대한제국, 개항,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군산에는 근대의 유산과 역사가 깃들었을까요?

이는 군산이 지리적 위치로 과거부터 문물교류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은 ‘많은 섬이 산처럼 보인다.’라는 지역명과 같이 서해의 중요 교역로였던 고군산열도가 있고, 서해의 중요 물줄기인 금강과 만경강이 흐르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 고대부터 문물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이에 군산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당시 군산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석기 시대를 볼 수 있는 내흥동 유적, 신석기를 엿볼 수 있는 섬들의 패총유적, 고려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유도 고려유적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각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유적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마한 유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마한은 충청도와 전라로 일대에 54개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체입니다. 현재 54개 소국의 정확한 위치와 역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다양한 사료와 발굴을 통해 마한의 소국들이 관개시설을 갖추고, 벼농사를 지었으며, 견직물과 철기를 생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는 정확히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상사(音相似)에 따른 지명 추론을 통해 『삼국지』 동이전에 나온 마한 54개국 중 만로국(萬盧國, 옥구), 임소반국(臨素半國, 옥구), 비리국(卑離國, 옥구·회현) 등이 군산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룡동, 옥구읍 선제리, 대야면 산월리 등에서 다양한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 국립군산대학교 내에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우리에게 마한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 글자는 다르나, 음(音)은 서로 같음.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원래 해안가였던 지역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과거부터 ‘말무덤(큰무덤)’이라 불리던 둔덕이 있는 장소입니다. 유적이 있다고만 알려졌던 장소인 이 지역은 2010년대 초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무덤 2기를 발굴하며 군산의 마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게 되며 군산 미룡동이 품은 마한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를 통해 마한시대 목관묘 40여 기, 옹관묘 30여 기 등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덤군 바로 근처에 주거지 7기가 확인되며, 미룡동 일원의 지형적·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한유적 최초로 ‘화재유구’가 발견되어 당시의 매장 의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색마연토기가 있습니다. 흑색마연토기는 한성백제에서 만들어진 토기로 검은색에 광택이 나는 귀중한 토기입니다. 당시 백제와 교류하던 중요지역에 보낸 토기로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는 7개가 확인되어 군산 미룡동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정, 환두대도 등 철기들이 수십 점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산은 철광석을 캘 수 있는 광산이 없고, 철을 만드는 제철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기 유물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현재는 문물 교류를 통해 철기 유물의 원자재인 철정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군산의 지역적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이 서해 문물 교류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군산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상도 지역의 경배, 만경강 상류에서 발견되는 직구단경호 등의 토기들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마한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 현장 공개가 2025년 11월에 있을 예정이오니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는 멈춰있지 않으며 언제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역사를 찾고 문화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2025년 발굴조사 출토 마한 철기 일괄
② 화재유구(근경1)
③ 화재유구(전경)



2025년 발굴조사 출토 마한 토기 일괄



군산의 10월, 100년을 넘는 진짜 시간여행으로

올해로 13회를 맞는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가 10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나흘간 군산시간여행마를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 그동안 근대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축제에서 벗어나 1899년 개항기부터 2050년 미래까지, 무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군산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그려갈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과 아픔, 동시에 산업화의 번영이 교차했던 도시이자, 호남지역 최초의 3·5만세운동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현장입니다. 또한 군산의 근대 건축물과 거리는 오늘날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한데 모아 “축제장 전체가 무대가 되는 이머시브* 페스티벌”로 꾸며져, 방문객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대가 전환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머시브(immersive)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이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형식의 공연을 말한다.





올해 축제는 근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근대·현재·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메인 축제장인 대학로 길을 중심 무대로 집중 구성해서, 각 구역별로 시대별 콘셉트 존으로 나눠 대학로를 거니는 방문객들이 미래부터 과거까지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항기 보부상 체험, 근대 도시의 산업화, 영화도시 군산의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관광과 RE100의 비전을 담은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앞에는 대형 특설무대가 새롭게 조성되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연이 나흘간 이어집니다. 박물관 건물의 독특한 외형과 결합한 공연은 오직 군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관람객들은 시간여행의 감각을 영상과 미디어로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군산 타임슬립 퍼레이드'**와 **'군산을 춤추게 하라'**입니다. 군산의 과거, 근대,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각 시대를 상징하는 퍼포머들이 행렬을 이루며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3·5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대형 퍼포먼스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댄스 챌린지는 무대를 모두의 파티 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르며 축제의 열기를 가장 뜨겁게 끌어올리는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개막식 직후에는 **'군산 타임슬립 디스코 파티'**가 열려 1910년대 음악부터 현대의 히트곡까지 미디어 아트와 함께하는 댄스 퍼포먼스가 관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예정이며, 11일 저녁에



열리는 근대풍 의상과 음악, 무용, 퍼포먼스 경연대회인 '군산향 밤부두 콩쿠르'는 군산의 근대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군산 곳곳의 영화 촬영지를 직접 탐방하는 **'군산 영화 콘텐츠 투어리즘'**과 **'영화 이머시브 체험'**을 통해 '군산=영화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며, 동시에 구시청 광장에 마련된 몰입형 영상 주제관에서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미디어 영상을 상영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가족들에게는 축제장이 그 자체로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대학로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미션을 수행하면 특별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미션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는 근대 역사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산의 아름다운 섬을 소개하기 위한 **K관광심 볼풀 이벤트**와 아이들을 위한 **도심 속 목장나들이** 체험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다채로운 놀이와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군산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1899년의 보부상 시장에 서 있다가, 곡물창고와 다방이 있는 1930년대로, 다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현재의 군산으로, 그리고 해양관광과 RE100의 도시로 도약하는 2050년의 미래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가을, 군산의 시간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군산에서, 진짜 시간여행의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군산의 전통시장 | 추석맞이장보기



추석 준비,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함께해요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차레상에 올릴 정성스러운 음식, 소중한 가족에게 전할 마음의 선물.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동네 전통시장입니다.

시장마다 다른 매력, 군산 전통시장 & 특화시장 한눈에 보기

군산공설시장



1918년 개장한 군산 대표 전통시장으로, 2012년 재건축을 통해 대형마트급 편의 시설을 갖춘 마트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분식 · 반찬 가게부터 의류 · 잡화, 청년몰과 어린이 놀이터까지 갖춰 가족 단위 고객과 관광객 모두 즐겨 찾습니다.

- 문의 063-445-4929
- 주소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 운영시간 09:00~21:30(점포별 상이)

대야전통시장(오일장)



1904년 지경장으로 군산 유일의 오일장으로, 매달 1일과 6일마다 장이 섭니다. 옛날 과자와 빵튀기,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 등 정겨운 장터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 문의 063-452-8252
- 주소 군산시 대야면 대야시장로 5
-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8:00(점포별 상이)
※일요일 8:00~19:00

명산시장



1920년대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1982년 상가형 시장 개설과 2003년 정비 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전통 방앗간과 김구 선생 포토존,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까지 갖춘 역사 · 관광형 시장입니다.

- 문의 070-4038-5328
- 주소 군산시 월명로 461-3(명산동)
- 운영시간 06:00~20:00(점포별 상이)



신영시장

1980년대 노점상 정비로 생겨난 소형 시장으로, 120여 개 점포가 비가림 시설 덕분에 편리하게 운영됩니다. 박대와 젓갈, 신선한 농산물, 친환경 반건조 건어물이 유명하며 인근 도시재생 숲 공원과 연계해 즐길 수 있습니다.

- 문 의 070-7788-3412
- 주 소 군산시 동신영길 43(신영동)
- 운영시간 07:00~18:00(점포별 상이)



역전종합시장

역전종합시장은 1965년 상가 주택 형태로 개장한 전통시장으로, 아침 해가 뜨기 전 문을 여는 새벽시장이 유명해 '도깨비시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 문 의 063-443-0475
- 주 소 군산시 구암3.1로 13-1(대명동)
- 운영시간 06:00~20:00(점포별 상이)



군산주공시장

100~150m 정도의 직선 구조로 이루어져 출발지를 잃을 걱정 없이 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으며, 떡집·생선 가게·방앗간·분식집 등 장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 문 의 063-461-0567
- 주 소 군산시 하나운안1길 45(나운동)
- 운영시간 07:00~19:00



군산수산물종합센터

2003년 개장 후 2023년 현대적 시설로 재탄생한 대표 수산시장입니다. 본관동 1층에는 활어·선어·수산물가공품 점포가, 2층에는 10여 개 횡집이 자리합니다. 별관 건어동에서는 다양한 건조 생선을 판매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바다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 문 의 063-442-4822(수산물센터 변영희 사무실)
- 주 소 군산시 내항2길 216(금동)
- 운영시간 08:00~20:00(본관) / 건어물 판매장 08:00~18:00

추석맞이 장보기 꿀팁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행사기간 2025. 10. 1.(수) ~ 10. 5.(일) / [5일간]

참여시장 수산물 : 군산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농축산 : 군산 주공시장

환급기준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 ▶ 2만원 환급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환급방법 행사 참여 점포에서 당일 농축·수산물을 구매 한 후,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하여 환급부스에 제출

문 의 군산공설시장 상인회(063-445-4929), 신영시장 상인회(070-7788-3412), 역전종합시장 상인회(063-443-0475),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063-442-4822), 군산주공시장 상인회(063-461-0567)



생활정보 톡톡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톡톡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 벌점 상계 (도주차량 신고)

-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 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

-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 중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생활정보 톡톡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YouTub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검색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집중호우
#인명피해제로도시
#집중호우안전수칙
#안전한군산



#군산먹거리
#섹시푸드#햄부기
#군산맛집#군산먹방



#한여름밤축제#군산의빛,꽃으로물들다
#군산근대문화유산#2025국가유산미디어아트



#2025군산북페어#군산지역서점#군산서점투어
#군산책방추천#책읽는도시

리포터 소식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 빛으로 희망의 꽃을 피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리포터 이유정



옛 군산세관 본관 일원에서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군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할아버지와 손녀 새별이 함께하는 시간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백년의 군산'은 조선은행 건물 창문을 활용해 옛 군산 사람들의 삶을 빛으로 표현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빛과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장면들은 군산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아픔마저도 따스히 품어내며 희망을 향한 길을 비추는 듯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미디어아트는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남았다.

가을밤을 수놓은 군산국가유산야행

리포터 김엘리



군산의 밤을 수놓은 특별한 축제, '군산국가유산 야행'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25년 8월 30일 마지막 날 현장에서는 호남 다풍이굿 개막 공연을 비롯해 '나만의 아리랑 책갈피 만들기', '근대 엽서 타자 체험', '금호학교 여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금호학교 여학당은 순우리말 배우기와 퀴즈 이벤트로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정답을 맞히고 선물을 받는 재미까지 더해져 한층 풍성한 야행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체험하는 생생직업!

리포터 강수현

내안의 숨은 재능 발견!

생생직업 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5. 9~11월중 토요일 운영대상 관내 초등학교생
운영장소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부모공동교육장(대학로 330)
체험비용 무료 신청방법 공유투리 사이트 예약(QR 접속)

운영일자	내 용	신청기간	운영시간	모집인원
9.6.	유투브크리에이터	8.28.(목) 10:00 ~	1차 10:00~11:00 2차 11:10~12:10 3차 13:00~14:00 4차 14:10~15:10	차시당 12명
9.13.	가상현실전문가			
9.20.	곤충연구가			
9.27.	주얼리어티스트			
10.11.	쇼콜라티에	9.25.(목) 10:00 ~		
10.18.	해양생태연구원			
10.25.	3D펜 아티스트			
11.1.	신약개발연구원			

☎ 군산시 아동정책과 ☎ 063-454-4164

군산 나운동에 있는 군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생생 직업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쇼콜라티에, 3D펜 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큰 관심이 기대됩니다. 체험은 하루 4차시로 진행되며, 1차는 오전 10시, 2차는 11시 10분, 3차는 오후 1시, 4차는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됩니다. 각 차시는 1시간 과정으로 회차당 12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9월과 10월 프로그램은 날짜별로 내용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공유투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에도 기상관측소가 있어요!

어린이리포터 박빛나



군산에도 기상관측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오성산 정상에 있는 기상레이더 관측소에 다녀왔습니다. 오성산 기상레이더 관측소는 해발 227m 정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소는 군산시 성덕면 성덕리 산 38-12입니다. 정상에 오르니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건물이 보였고,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서·남해상의 기상정보를 관측하는 첨단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 무척 궁금했습니다. 관측소 옆에서는 군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푸른 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의 숨은 명소, 오성산 기상레이더 관측소에 가 보셨나요?

가을에 떠나는 책 여행

유아



선녀 세탁소

한진희(글, 그림) | 북극곰 | 2025
바쁘고 고단한 모든 엄마를 위한 선물 같은
그림책. 혹시, 우리 엄마도 선녀였을까?
궁금해하는 그림책.

장수풍뎡이 호텔

마누 몬토야(글, 그림) | 머스트비 | 2025
마누 몬토야가 들려주는 행복을 낳는 변화
이야기. 고집을 버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면 과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공포의 하얀 발

강정연(글), 차야다(그림) | 다산어린이 | 2025
혼자서도 씩씩하게 해내는 힘을 키우는, '읽기
독립' 그림동화.
'너의 도전을 응원해!'

실패왕 뽀끼 대회

박슬기(글), 유영근(그림) | 북멘토 | 2025
우리가 몰랐던 실패의 즐거움이 짜잔! 웃기고,
신나는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진답니다.
실패하면 어때!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아.



청소년



고백해도 되는 타이밍

황영미 | 우리학교 | 2025
보통의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때 생겨
나는 특별한 순간들.
지금 여기를 사는 청소년들의 세밀화.

성인



슬픔의 틈새

이금미 | 사계절 | 2025
역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당당
하고 뜨겁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질곡 깊은 역사 속 사할린 한인들의
간절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좋은 사람 도감

묘엔 스구루 | 서교책방 | 2025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100명의 좋은 사람'을
발견하여 수집한 도감.
좋은 사람을 발견한 횡수만큼, 일상이 행복
해진다!



도서관 주간 행사 안내

2025년 군산시립도서관 우수독서 프로그램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강연 및 체험 행사

작은 유리 속, 나만의 숲 만들기 체험	• 일시 : 10. 15.(수) 17:00~19:00 • 강사 : 김한아 테라리움 강사 • 대상 : 시니어 20명
'사랑'을 엮는 일상의 대화	• 일시 : 10. 18.(토) 14:00~16:00 • 강사 : 김한아 테라리움 강사 • 대상 : 시니어 20명
동물들을 지키는 '수의사' 이야기	• 일시 : 10. 21.(화) 19:00~21:00 • 강사 : 이한경 수의사 • 대상 : 시니어 및 가족(30명)

■ 신청 : 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문의 : 시립도서관 ☎ 063-454-5632)

2025년 설림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무지개 물고기」 샌드아트

■ 일시 : 10. 28.(화) 19:00~20:00

■ 대상 : 아동 및 보호자(50명)

■ 내용 : 무지개 물고기 동화 샌드아트 공연

■ 장소 : 설림도서관 아동자료실

■ 신청 : 10. 20.(월)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문의 : 설림도서관 ☎ 063-454-5702)

산돌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 일시 : 10. 29.(수) 19:00~21:00

■ 장소 : 산돌도서관

■ 대상 : 중학생 이상 누구나

■ 강사 : 조운범(바이올리니스트)

■ 내용 :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
조운범이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음악사 이야기

■ 신청 : 10. 21.(화)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 문의 : 산돌도서관 ☎ 063-454-5802)



2025~2026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지금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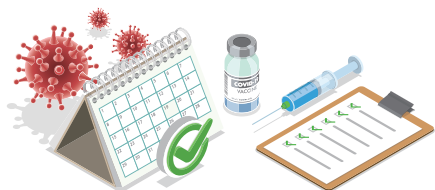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플루엔자는 고열과 근육통, 기침, 폐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자에게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 미리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구분	지원대상	사업기간		지정의료기관
어린이	생후 6개월~13세 (‘12. 1. 1.~’25. 8. 31. 출생자) ※ 9세 이상은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2회 접종대상 (생애 첫 접종자)	‘25. 9. 22.~’26. 4. 30.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불가)
		1회 접종대상 (과거 접종력 2회 이상)	‘25. 9. 29.~’26. 4. 30.	
임신부	임신부 (임신주수 무관) (지참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신진단서 등)		‘25. 9. 29.~’26. 4. 30.	
어르신	75세 이상 (‘50. 12. 31.이전 출생자)		‘25. 10. 15.~’26. 4. 30.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70~74세 (‘51. 1. 1.~’55. 12. 31. 출생자)		‘25. 10. 20.~’26. 4. 30.	
	65~69세 (‘56. 1. 1.~’60. 12. 31. 출생자)		‘25. 10. 22.~’26. 4. 30.	
군산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25. 10. 27.~12. 31.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불가)
	14~18세 시민 (‘07. 1. 1.~’11. 12. 31. 출생자)		‘25. 10. 27.~12. 31. (백신 소진 시 까지)	
	60~64세 시민 (‘61. 1. 1.~’65. 12. 31. 출생자)			
	보육·돌봄 종사자			

안내사항

-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및 백신 보유 여부 유선 상 확인 필수



☎ 보건소 예방접종실 454-4950

“지금 우리 동네는”

옥구읍, 농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나눔 준비

옥구읍 농촌지도자회는 9월 3일 관내 배추 경작지에서 동절기 저소득층 김장 지원을 위한 배추 모종 700포기를 심었다. 회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모종을 심었으며, 이번에 재배된 배추는 겨울철 수확 후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임피면, 착한가게 릴레이 가입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3일 착한가게 4곳(㈜상원이앤지, 조은가정의학과의원, 모현흑염소, 웅고집쌈밥) 헌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가입은 협의체와 이장 협의회장이 직접 참여를 독려한 결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가을밤을 수놓은 중앙동 우리동네 음악회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대영)가 주최한 ‘제3회 우리동네 음악회’가 지난 9월 12일 금암동 도시재생숲 공원에서 20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된 무대에서는 세미클래식, 하모니카, 색소폰, 대금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과 주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빨래 봉사로 전한 온정,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10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빨래 봉사를 진행했다. 뇌 병변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 댁을 찾아 젖은 이불과 옷가지를 수거해 세탁·건조 후 전달까지 마쳤으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을 돕는 봉사를 적극 이어갈 예정이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갈등하는 두 세계

군산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명근



현재 러시아 국립 음악원의 명칭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입니다. 이는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서유럽식 음악 이론과 형식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했고, 동시에 러시아 특유의 선율과 정서를 음악에 담아내려 고심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그의 교향곡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교향곡 5번과 6번은 예술적 고민과 개인적 고뇌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8년에 완성된 교향곡 5번은 흔히 ‘운명 교향곡’으로 불립니다. 물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는 다른 작품이지만, 단조에서 장조로 전환되는 승리의 찬가나 베토벤 7번 교향곡의 리듬을 차용한 부분은 정의와 존경을 표하는 오마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서두를 어둡고 침울한 클라리넷 주제로 표현하여 베토벤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숙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2악장에서는 단순한 비극에 머물지 않고 따뜻한 서정적 선율로 러시아적인 요소와 고독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3악장은 왈츠풍의 유럽식 구성을 따르면서도, 러시아 특유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 4악장에서는 1악장의 비극적인 선율을 장조로 전환하여 승리의 찬가로 올려 퍼지게 합니다. 서유럽식 구조 안에서 러시아적 선율과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과 5년 뒤 세상에 나온 교향곡 6번, 일명 ‘비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임을 직감한 듯, 그는 더 이상 서유럽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3악장까지 힘찬 행진과 환희를 쌓아 올리지만, 마지막 4악장에서 음악은 전혀 없는 깊은 슬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교향곡은 당연히 승리로 끝나야 한다는 서유럽적 기대를 산산이 깨뜨린 것입니다. 대신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적 비극성, 운명 앞에 체념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곡의 작곡을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운명합니다. 이 작품이 유언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두 교향곡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5번이 ‘서유럽적 형식 속에 담긴 러시아의 투쟁’이라면, 6번은 ‘러시아적 정서가 결국 서유럽 전통마저 집어삼킨 절망의 기록’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끝내 두 세계를 완벽히 화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긴장과 갈등이야말로 그의 음악을 위대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활동한 19세기의 러시아 음악은 정체성 문제와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서유럽 클래식 음악의 견고한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러시아만의 고유한 음악적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이 작곡가들에게 주어진 시기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계의 고민과도 유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팝 음악이나 유럽 클래식 음악을 수용하되,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은, 외국의 음악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지만,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분야는 아직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심들이 공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인지 유독 우리나라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특히 교향곡이 더욱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을 들으며 느끼는 전율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나 극적인 전개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진실한 감정을 음악에 새겨 넣은 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은 러시아의 심장을 품은 동시에, 세계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솔함이야말로 시대와 국경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건의안과 성명서를 소개합니다.

박경태 의원 대표발의 (1차 본회의)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건의안

박경태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축소가 아닌 단계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것(28년까지 현행의 75% 적용, 29년까지 62.5% 적용, 2030년 최종 목표한도 적용 제한)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 대표발의 (1차 본회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건의안

김영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동일한 임금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과 호봉제 표준을 위한 국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과 이에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1차 본회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건의안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성과보다는 비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조속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상시 해수 유통을 포함한 영구 개선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할 것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 즉시 설치로 유치기업 조기 지원 ▲송·변전 설비 즉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1차 본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건의안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반납 절차 강화와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종삼 의원 대표발의(2차 본회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윤세자 의원 대표발의 (2차 본회의)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건의안

윤세자 의원은 26만 군산 시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는 군산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RE100 산업단지화 및 AI 고속도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 ▲관계 정부 기관은 RE100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일 의원 대표발의 (2차 본회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업단지 지정 촉구」건의안

김영일 의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후 위기 대응, 경제성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3대 과제 동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속 지정할 것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전환 참여 촉진을 위해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정부와 국회는「RE100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수 의원 대표발의 (2차 본회의)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활성화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서동수 의원은 26만 군산 시민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 사업 지역을 조정할 것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2차 본회의)



「전주 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

송미숙 의원은 군산 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즉시 실현할 것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군산 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 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2차 본회의)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성명서

한경봉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군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피해의 최소화 및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피해복구 총력,
주민안전 최우선**

군산시는 9월 6~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53개 부서 159명을 27개 읍면동에 투입해 빗물받이·하수구 점검과 재난 피해지 및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을 시행했다. 또한 관계 기관,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주택·도로·농경지의 토사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 안전총괄과 454-3864



군(軍)·산(産)MRO, 군산과 함께

군산시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軍)·산(産) MRO, 군산(群山)과 함께」를 주제로 2025 한미함정 MRO 군·산 융합발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MASGA 프로젝트 대응과 함정 MRO 산업 발전, 특수목적선 선진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조선험력, 글로벌 MRO 시장 확대, 군산의 산업적 가치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군산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세계 해양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유지보수·수리 및 정비)

☎ 신성장산업과 454-2763



새만금을 미래에너지 허브로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9~10일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공동 개최했다.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입지와 비전을 알리며, 해상 풍력·수상태양광·수소연료 등 최신 기술 전시와 포럼, 논문발표 등 민·관·산·학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신재생에너지과 454-4414



독서가의 성지, 군산북페어 2025 개최

‘군산북페어 2025’가 8월 30~31일 군산회관에서 열려 출판사, 독립서점, 작가, 독자 등 수많은 방문객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SHARING · CARING · PUBLISHING(공유와 나눔, 보살핌, 출판)을 주제로 특별대담, 워크숍, 전시, 북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군산시는 이번 북페어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군산이 ‘젊은 독서가의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했다.

☎ 도서관관리과 454-5632





INFO BOX

추석연휴 120생활민원종합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2025.10.5.(일)~10.8.(수)[4일간]
 운영시간 09:00~17:00
 주요분야 8개분야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환경, 식품, 보건)
 신고방법 일반전화 문의 120
 휴대전화 문의 063-120
 ☎ 열린민원과 454-2530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안내

날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동	읍면	
10.3.(금)	정상수거	정상수거	정상수거
10.4.(토)	정상수거	정상수거	정상수거
10.5.(일)	정상수거	휴무	휴무
10.6.(월)	휴무	휴무	휴무
10.7.(화)	휴무	휴무	정상수거
10.8.(수)	정상수거	정상수거	정상수거
10.9.(목)	정상수거	정상수거	정상수거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 동 지역 서해환경 ☎063-445-2943
 — 읍·면지역 직영미화원 ☎063-454-7905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 금호로지스 ☎063-451-4991
 ☎ 자원순환과 454-3450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안내

운영기간 2025.10.3.(금)~10.9.(목)
 운영시간 09:00~18:00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석 연휴 응급진료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문 의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 ☎063-454-5000
 군산시 소방서 ☎119
 군산의료원 응급실 ☎063-472-5000
 동군산병원 응급실 ☎063-440-0507
 ☎ 보건행정과 454-4930

군산 승화원(화장시설) 추석 명절 휴무 안내

구분	운영여부
10.5.(일)	정상운영
10.6.(월)	휴 무
10.7.(화)	정상운영
10.8.(수)	정상운영
10.9.(목)	정상운영

주 소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63-34
 ☎ 군산시 승화원 454-7950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을 및 지류 구매해도 상향안내

적용기간 2025. 9. 1.(월)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변경사항 할인을 : 10% → 13%
 지류 구매해도 : 10만 원 → 30만원(9월~11월)
 유의사항 1. 기존 할인을 구매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 불가(모바일의 경우, 충전금액의 60%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 가능)
 2. 지류 구매대상은 만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으로 동일 함
 ☎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454-2660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금 안내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신청기간 2025.9.22.(월)~10.31.(금)까지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가구 합산 20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
 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예) 4인기준 직장건강보험료 51만원 이하)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외

신청지역 2025.6.18.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ARS, 지역사회상품권 앱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사용가능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군산시 콜센터 454-4370

방문판매업 등 합동 집중 단속 운영

운영기간 2025. 12월까지
 점검대상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 식품판매, 의료기
 기판매 등록 업체
 점검사항 방문판매업 등 판매 등록 신고 여부 및 위법
 사항 단속 등
 조치계획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

☎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454-2665

2025년 군산메이드마켓 입주자상시 모집

모집기간 2025. 10월까지
 모집대상 먹거리를 제외한 수제창작분야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군산시 거주 만19~49세 이하
 — 수제창작분야 사업 경력 3년 미만 기 창업자
 지원혜택 — 창업공간 제공, 공동작업장 기자재 이용
 — 팀당 630만 원 내외 사업화 자금, 창업멘
 토링 및 공과금 지원
 ※ 입주자 부담 : 임대료 및 운영비 일부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454-4392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2차 모집 안내

모집기간 9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급안내 2025. 10월 이후
 사용기한 2025. 12. 31.(수)까지
 사 용 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어르신스포츠상품권'
 사용처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6

군산시민에게
 유익한정보를
 소개합니다.





01 군산시립교향악단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 「은파, 세바우 전설」

일 시 2025. 10. 16.(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입 장 료 전석 5,000원 *감면기준은 조례에 근거
예 매 처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6

02 KBS 전국노래자랑 방영 「군산시 편」 방영 안내

방송일시 2025. 10. 19.(일) 12:10~
방송채널 KBS 1TV
방송내용 본선진출 15개 팀 경연 방송
주최/주관 군산시/한국방송공사
※ 방영 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 454-3282



03 2025 군산새만금아카데미 5강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수업」

일 시 2025. 10. 23.(목) 19: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강 사 이호 전북대 법의학교수
입 장 료 무료
참여방법 유선신청 및 현장접수 또는
평생학습정보망(www.gunsan.go.kr) 접수

☎ 교육지원과 454-2602

04 발레 헨젤과 그레텔

일 시 2025. 10. 25.(토) 15: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46개월 이상 관람가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예 매 처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2025.10.25.(토) 15:0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05 트래블콘서트 비포 선라이즈(비엔나편)

일 시 2025. 10. 29.(수)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생 이상 관람가
입 장 료 전석무료
예 매 처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06 2025 군산짬뽕 페스티벌

행사기간 2025. 10. 9.(목)~10. 12.(일)
※개막식 : 10.9.(목) 16:30
행사시간 11:30~21:30
행사장소 군산 백년광장 일원(장미동)
주요내용 개막식, 개막공연, 문화공연 등
☎ 관광진흥과 454-3910



※ 자세한 행사일정은 2025 군산짬뽕페스티벌 공식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7 202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추석 한마당 큰잔치

행사기간 2025. 10. 3.(금)~10. 8.(수)
행사장소 근대역사박물관 및 7개 분관
주요내용 추석 당일 무료 입장 및 상시 스탬프 투어 등 체험행사 진행

추석 행사일정표

일자	시간	행사명	장 소	행사내용
10.6.(월) 추석 무료입장	11:00~12:00	저글링 공연	박물관 로비	가족과 함께하는 저글링 공연
	14:00~16:00	전래놀이 체험	박물관 광장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비석치기 등
	14:00~15:00	풍물놀이공연	박물관 광장	국악 사물놀이 공연
	14:00~16:00	가훈써주기	박물관 로비	한가위 소원을 담은 가훈 써주기

※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행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박물관관리과 454-7870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총예산 11.6억
(도비 0.7 시비 10.9)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2025 군산시간여행 축제

2025. 10. 9. [목] - 10. 12. [일]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

